

## 우리 나라의 古醫學書籍에 대한 概觀

金 宗 會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 序 言

現代醫學이 輸入됨으로써 많은 疾病을 治療했고, 또 疾病에 대한 豫防도 可能하게 되었다. 그러나 現代醫學의 治療法으로 疾病을 治療하지 못하는 病을 漢方醫學로 完治시킨 事實도 許多하다.

現代醫學이 輸入되기 以前에는 勿論 漢方醫學에 依存했으나, 現代는 거의 現代醫學에 依存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에는 無醫村이 많다. 無醫村이란 所謂 洋醫·漢醫 모두 없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地方에서는 거의 漢方醫에게 治療를 받고 있는 現實이다. 現代醫學이 發達했다 하더라도 漢方醫學을 輕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先祖들이 大陸醫學을 輸入하여 이를 基礎로 많은 漢醫學書籍을 編纂乃至 著述하여 當時의 많은 疾病을 治療하였으며, 또한 그 古醫學書籍에 의해 現在 漢方醫學을 研究하여 發展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우리의 古醫學書籍에 대한 認識을 높이기 위하여 그 中 가장 基本的인것을 가려서 紹介하는 바이다. 한가지 遺憾된 것은 紙面의 割愛가 不足하여 各 書籍에 대한 註釋을 달지 못한 點이다. 機會가 있는대로 繼續해서 註釋을 달아볼 計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醫學書籍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百濟新集方”과 “新羅法師方”이다. 百濟新集方은 漢方 本草學(藥物學)的 知識에 根據한 民間藥의 處方集과 같은 것이며, 新羅法師方은 “新羅法師秘密方” “新羅法師流觀秘密要術法”이라고도 불리는 바 佛敎의 呪術이 加味된 治療法 즉 法師의 秘密方이라고 생각된다.

이 書籍들의 斷片의인 句節들을 通하여 볼 때 三國時代의 우리 나라 固有의 治療法이 儒敎와 佛敎의 傳來, 中國文化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漢方의 方向으로 發展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迷信의이고 呪術의인 性格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統一新羅에서는 7世紀末(孝祖王 때)에 醫療制度로서 藥典을 두었으며, 博士 두 사람을 두어 學生들에게 “本草經” “甲乙經” “脉經” “明堂經” “難經”을 가르쳤다고 한다.

本草經은 漢方의 古代 藥物學 書籍을 말하며, “素問

經”과 “難經”은 內科學 書籍이고, “甲乙經” “針經” “脉堂經”은 鍼靈療法에 관한 書籍이며, “脉經”은 診斷學 書籍이다.

여기에 例學된 書籍들은 漢方 古代醫學의 基本的인 書籍들이다. 統一新羅에서 이런 書籍들이 醫學敎育에 利用된 것은 朝鮮醫學이 漢方醫學으로서 地盤을 닦기 시작한 것을 말한다.

高麗時代의 醫學敎育課目을 보면, 앞에서 例學한 書籍 以外에 皮膚科 및 外科에 該當하는 “劉涓子方”과 “瘡疽論”이 들어 있었다. 高麗醫學도 封建官僚들의 獨占下에 迷信의인 呪術로서 發展되었으며, 宮廷醫療機關이었던 典醫寺, 奉醫寺의 官制에 博士, 醫正, 醫針師, 注藥, 藥重과 함께 呪噤博士, 呪噤師, 呪噤工이 들어 있었으며, 그들은 어떤 秘密의인 處方에 따라 藥을 쓰되, 佛經을 의우고 呪噤的인 行事를 함으로써 藥効를 發揮시키고, 病을 治療하는 데 從事하고 있었다. 그러나 高麗에서 封建, 官僚制度가 確立되고, 社會, 經濟情勢가 安定됨에 따라 11世紀를 前後한 文化의 一般的인 高潮와 함께 醫學도 發達하였으며, 特히 醫學書籍의 雕刻事業이 活潑히 進行되었다.

西紀 1056年(文宗 10年)에는 西京 留守의 要請에 따라 여러가지 經典과 함께, 醫學書籍도 많이 雕刻하였으며 1058년에는 忠州牧에서 “黃帝八十一難經”도 많이 雕刻하였다. 또한 同年 忠州牧에서 “黃帝八十一難經” “川玉集” “傷寒論” “本草括要” “小兒巢氏病源” “小兒藥證病源一十八論” “張仲景五藏論” 등 99版을 새로 組版하여 바쳤으며, 1059년에는 安西都護部에서 “肘後方” 73版, “疑獄集” 11版, “川玉集” 11版을 組版하여 올렸다.

高麗時期의 醫學書籍에 대하여 말할 때, 반드시 強調해야 할 것은, 우리 나라의 醫學者들이 自己의 數世紀에 걸치는 醫學上的 經驗을 概括한 獨創的인 醫學書籍의 出現, 特히 鄉藥 즉 朝鮮의 藥材研究와 거기에서 얻은 藥物學的 知識에 根據한 處方集이라는 것이다.

東國 李相國集 第21卷에 있는 “新集御醫撮要方序”에 의하면, 高麗에 “茶房所集藥方”과 “御醫撮要”가 있었다. 上記 記錄에 의하면 高麗에는 많은 人命을 救할 수 있는 “茶房所集藥方”이 있었으나, 그것이 오래 되어 떨어져 나가고, 털어서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그것

을 두 권으로 나누어 다른 醫書에서 가장 重要的 藥方들을 拔萃하여 그에 添加하고, 이것을 御醫擧要라고 이름지어 西京에서 出版하여 民間에 普及시켰다고 한다. 이 冊들은 오늘날 傳하지 않으나, 高麗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으로 된 藥方集으로서 強調되어야 할 書籍들이다.

또 傳하여지지는 않으나, 金石 또는 文獻의 資料에 의하여 金永錫의 “濟衆立効方”과 鄭道傳의 “診脈圖訣”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文獻에 의하여 알려진 高麗時期的 醫學書籍 가운데서 鄉藥의 藥方集으로서는 “鄉藥惠民經驗方” “鄉藥古方” “三和子鄉藥房”이 있으며, 高麗 때에 “大藏圖鑑”에서 刊行하고 李朝初(1417年)에 復刊한 “鄉藥救急方”이 있다. 이 書籍들은 鄉藥 즉 朝鮮의 藥材研究에 基礎하여 이루어진 處方集이다. 이런 冊들은 漢方醫學에 屬하지만, 朝鮮의 藥學이 形成되며 發展하는 過程이 反映되어 있다. 그 중에서 오직 鄉藥救急方(1417年版)만이 日本에 傳해졌다고 하는 바, 이 冊은 當時의 우리나라 醫學, 특히 鄉藥研究의 成就를 보여주는 唯一한 文獻으로서 醫學史의 으로 매우 貴重한 資料가 된다.

이와 같은 高麗時期的 醫學書籍에서 우리나라의 漢方醫學이 自己의 獨自性을 發揮하면서 漸次 새로운 發展段階에 들어서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高麗가 남겨 놓은 醫學書籍들을 통하여 李朝는 高麗時期에 싹트기 시작한 鄉藥研究部門의 成就도 包含한 醫學 遺産들을 繼承 發展시켰다.

李朝 初期에 高麗의 鄉藥에 관한 研究와 그에 基礎한 藥方을 繼承하여 發展시킨 것은 1399年(太祖8年)에 完成된 “鄉藥濟生集成方”(30卷)이다. 이 冊은 編者 金希善 등의 高麗의 醫書 “三和子鄉藥房”과 그 後 李朝 初期에 權仲和가 編纂한 “鄉藥簡易方”을 中心으로 從來의 朝鮮의 醫療經驗을 概括한 藥方들을 病門別로 分類하여 編纂한 것이다. 이 冊은 또 世宗 때에 完成한 “鄉藥集成方”의 原流가 된다.

高麗時期부터 獨自性을 發揮하기 시작한 朝鮮의 漢方醫學은, 특히 世宗以後의 時期에 이르러서는 自己 發展의 보다 높은 段階에 들어섰던 것이다.

이와 같은 狀態는 世宗以後의 朝鮮의 醫書 刊行에서 表現되었다. 우선 中國醫書의 翻刻에 있어서의 悲觀의 態度가 그것이며 朝鮮醫學의 成就를 集大成한 醫書들의 刊行이 그것이다.

中國醫書로서 “本草拾遺”(20卷), “素問八式運氣論奧”(3卷) 등을 비롯한 10餘種에 達하는 것들이 翻刻되었으며, 또 李朝 中葉의 有名한 醫學者 許浚은 李朝 中期에 이르러 中國 六朝時代의 醫學者인 高陽生이 編纂한 “藥圖脈”의 不足, 誤謬를 校正 補充하여, “藥圖方論脈

訣集成”(4卷4冊)으로 하였다. 許浚이 여기에서 表示한, 中國醫書에 대한 悲觀의 態度는 當時의 朝鮮醫學을 特徵짓는 重要的 表情이기도 하였다.

李朝時期 朝鮮醫書의 全般的인 體系化는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東醫寶鑑”의 三大醫書에서 遂行되었다.

“鄉藥集成方”(85卷)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高麗以來의 朝鮮醫學의 鄉藥研究와 그에 基礎한 多年間의 醫療經驗을 概括한 藥方의 集大成이다. 權採, 俞孝通, 盧重禮 등이 朝鮮產 藥材研究를 先行한 成果에 依據하여 編纂한 이 冊은 959種의 病에 대한 10,706種의 處方과 1,476組의 鍼靈法, 그리고 朝鮮藥草 및 調劑法을 敘述하면서, 當時의 朝鮮醫學, 특히 朝鮮藥學의 成果를 綜合하고 있다.

“醫方類聚”(226卷 264冊)는 1445年(世宗27年)에 王命으로 金循義를 비롯한 醫學者들이 3年間의 努力으로 完成하고, 1460年(世祖5年)에 梁誠之가 校正하여 5年後에 刊行한 것이다. 이 冊에는 中國의 唐, 宋, 元, 明 初까지의 153種의 醫書들이 原文 그대로 95個의 病文에 體系的으로 類聚되어 있어, 醫學의 百科全書와 같은 特色을 나타내고 있다. 이 冊의 醫學史的 價値는 實로 크며, 이렇게 東洋醫學을 集大成함으로써, 그에 集成된 唐, 宋, 元, 明 初의 醫學과 醫學上의 成果들을 서로 交流하면서 發展하고 있는 當時의 朝鮮醫學의 全般的인 面貌를 알려주고 있다.

“醫方類聚”는 또한 그가 引用한 153種의 醫書 가운데서 現在 傳하지 않는 流失된 冊들의 內容을 알려준다. 이 冊을 編纂한 事業의 規模만 하더라도 大藏經 刊行에 比할 만한 것이다. 醫方類聚의 出現은, 우리나라 醫書 出版史上 世界的으로 자랑할 만한 事實이다.

“鄉藥集成方” “醫方類聚”의 뒤를 이어 朝鮮醫學은 東洋醫學史에 있어서 重要的 意義를 가지는 “東醫寶鑑”을 남기 하였다.

“東醫寶鑑”(25卷 25冊)은 宣祖의 命으로 編輯에 着手하여, 許浚이 1611年(光海君 3年)에 完成하였다. 이 冊은 國內외의 많은 醫學書籍들을 引用하면서, 東洋醫學의 全般的인 成果들을 “醫方類聚”보다 훨씬 簡單明瞭하게, 또 敘述體制도 類聚와는 달리 23編으로 分類하여, 內景篇(內科) 4卷, 外形篇(外科) 4卷, 雜病篇(流行病, 婦人病, 小兒病 等) 11卷, 湯液篇(藥方) 3卷, 鍼靈篇 1卷으로 區分하여 敘述하고 있다. “東醫寶鑑”은 많은 醫書들을 引用하였어도 繁雜함이 없고, 그 龐大한 內容이 매우 잘 整理되어 있으므로, 그 後 中國과 日本에서 各各 여러 차례 刊行되었으며, 漢方醫學의 基本參考書로서 널리 利用되었다.

“東醫寶鑑”은 事實上 漢方醫學의 百科全書라 하겠다.

“東醫寶鑑”以後의 우리 나라 漢方醫學의 價値 있는名著로서는 “濟衆新編”과 “方藥合編”이 있다.

“濟衆新編”(8卷 5册, 1799年刊)은 正祖의 命으로 康明吉이 古今의 醫書를 參考하여 그의 要點을 拔萃하여 實際의 應用에 便利하게 編輯한 것이다. 이 冊은 “東醫寶鑑”以後 醫學上의 새 成就物로서, 그 缺點을 補強하였을 뿐 더러 至今까지의 醫學書籍에서는 보기 드문 養老編을 敘述하고 藥性歌를 添付하였다. 이 藥性歌는 主要한 藥物의 効用을 四言四句의 노래 形態로 敘述하여 記憶을 쉽게 한 것이다.

“方藥合編”(1册)은 黃道淵의 藥方書籍이다. 이 冊의 特點은 朝鮮醫書 가운데서 가장 簡單하고 明確함에 있다.

“濟衆新編”과 “方藥合編”에서는 모두 實用性이 많이 考慮되었다. 그러므로 이 冊에서 우리 나라 漢方醫學이 實用的인 面에서 一步 前進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李朝末期에 擡頭한 四象醫學說은 朝鮮醫學發展에 새로운 段階를 意味한다. 四象醫學說은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4卷2册, 1901年版)에서, 理論的으로 敘述되어 있는 바, 이것은 朝鮮의 漢方醫學이 達成한 成果 가운데서도 特記해야 할 것의 하나이다. 李濟馬의 四象醫學說은 그 後 後繼者들에 의해 “東醫四象新編”으로 다시 發表되었으며, 咸鏡道一帶를 根據로 하고, 現在에 이르기까지 朝鮮漢方醫學의 하나의 主要한 潮流를 이루고 있다.

李朝時期, 우리 나라 醫學의 特徵의 하나는 豫防醫學部分이 發達한 點이며, 이것은 우선 衛生學에 관한 研究가 進行되고, 그에 대한 專門의 醫書들이 많이 發刊되었다는 點에서 나타나고 있다.

衛生學書籍에는 “濟衆新編”의 養老編을 비롯하여, 全循義의 “食療纂要”, (海東文獻總錄에 本書名을 볼 수 있으며 全循義撰으로만 收錄되어 있을 뿐이다) 鄭惟仁의 “願生錄”(海東文獻總錄에서 書名만 볼 수 있다), 朴雲의 “衛生方”(海東文獻總錄에서 書名만 볼 수 있다)이 있었다는 것이 文獻에 의하여 確認되었다고 하나, 그 內容은 알 수 없으며 現存하는 것으로서는 “壽民妙證”(4卷2册, 寫本·正祖王撰)이 있다 한다.

“壽民妙證”은(正祖自撰의 「弘齋全書」中에 收錄되어 있으며 王의 親撰이다) 처음에 身·精·氣·以下 婦人小兒에 이르는 各 部門에 있어 正論脈訣을 收錄한 것이며, 다음으로 五臟六腑, 胞蟲大小便, 頭面, 手足 등의 各 器管을 說明하고, 그 病이 惹起되는 原因과 症狀를 敘述하였다.

李朝時期的 醫書 가운데서 比較的 많은 部分의 하나인 防疫關係文獻들에도, 傳染病의 豫防에 關하여 敘述되어 있다.

이 書籍들이 李朝時期에 各地에 여러번 蔓延한 傳染病에 대한 對策으로 著述된 것은 勿論이지만, 또 그런 것 만큼 病에 대한 治療法과 함께 病에 걸리지 않기 위한 醫學上의 여러가지 問題들이 多分히 考慮되어 있었다.

防疫關係 書籍 가운데서 1524年(中宗19年) 平安道에 蔓延한 癘疫에 대한 對策으로 그 病後, 藥名, 治療法, 豫防法 등을 簡明하게 記述하고, 各項에 國文으로 翻譯하여 刊行한 “簡易辟瘟方”(1册, 印本, 1525年刊), 1612年(光海君4年)咸鏡道一帶에 流行하고 全國에 蔓延한 癘疫에 대한 對策으로 “簡易辟瘟方”을 出版하고, 다시 癘疫의 原因, 診斷法, 藥名, 治療法, 豫防法, 禁忌 등을 비롯한 問題들을 記述하여 刊行한 “新纂辟瘟方”(1册, 印本, 許 濬編, 1613年版), 1613年(光海君5年)에 流行한 毒疫에 대한 對策으로 毒疫의 原因, 症狀에서 治療法 및 豫防法에 이르기까지 極히 簡明하게 記述하여 刊行한 “辟疫神方”(1册, 印本, 許 濬編), 1653年(孝宗4年)에 黃海道에 流行한 癘疫에 대한 對策으로 그의 病原, 治療法, 豫防法, 禁忌등을 簡明하게 記述하고, 各行에 國文으로 譯을 붙이여 校書館에서 印刊하여 頒布한 “辟瘟新方”(1册, 印本, 安景昌編) 등이 重要한 것들이다. 이 冊들에 敘述되어 있는 療法에는 部分的으로 迷信的 要素가 包含되어 있기는 하나, 學術的으로 正確한 治療法들을 紹介하고 있다.

增補文獻備考에 들어 있는 任元滄의 “瘡疹集”, 1775年(英祖51年) 서울에서 流行한 麻疹의 治療 經驗을 收錄한 李獻吉의 麻疹奇方(寫本1册) 19世紀初의 冊으로 推定되고 있는 “麻方統彙”(4卷4册) 등은 麻疹醫學의 重要한 書籍들이며, 丁茶山의 麻科會通(7篇)도 이 部分에 屬한다. 麻科會通은 中國醫學에 대한 批判性과 獨自性이 濃厚한 書籍이다. 이 밖에도 洪陽智의 “紅疹”(寫本1册), 著者 不名의 “痘瘡經驗方”(寫本1册), 楊禮壽의 “痘瘡集彙解”(2卷) 등이 있다.

種痘에 관한 西洋醫學說이 紹介되기 前에 朝鮮醫學에서 種痘法을 처음으로 試用한 것은 丁茶山이다. 그 後 西洋의 種痘法이 輸入되었으며, 池錫永에 이르러 實際로 適用할 수 있게 되었다.

種痘法을 解說하고, 또한 普及하기 위한 種痘書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 時期的 種痘書 가운데서 1817年(順祖17年)에 刊行한 李鍾仁의 “時種通論”(2卷1册)과, 1885年(高宗22年)에 刊行된 池錫永의 “牛痘新說”(上·下2卷1册)을 代表的으로 들 수가 있다.

다음에 救急醫學에는 尹弼商 등이 여러 醫方 가운데서, 가장 急한 病과 쉽게 얻을 수 있는 藥을 拔萃하여 冊을 만들고, 國文으로 翻譯한 “救急易解方”(1卷, 1499年刊), 1790年(正祖10年)에 李景華가 編纂한 “廣濟秘

笈”(4卷4册)이 有名하며, “救急方諺解” “村家救急方”(1卷, 金正國撰)도 있다.

救急醫學과 病歷關係書籍들의 많은 部門은 國文으로 翻譯 出版되었다. 이것은 이런 醫書들의 出版意圖과 그를 普及시킬 必要性에서 取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것이 一定하게 醫學知識의 普及에 寄與한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李朝時期에 女醫가 있었고, 그들이 주로 婦女들의 醫療事業에 從事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李朝時期에는 産婦人科 같은 醫學部分도 한 개의 分科를 이루고 發展하였다. “醫方類聚” “東醫寶鑑”에 該當하는 病文에 이 部門醫學知識이 收錄되어 있는 以外에 專門著書로서 盧重禮가 編述한 “胎產要錄”(2卷, 世宗16年 1434年)과 許浚의 “諺解胎產集要”(1册, 1608年刊)가 가장 有名하다.

“諺解胎產集要”는 男女의 精力을 強健하게 하는 藥方이며, 또한 妊娠中の 諸症, 藥方産前諸症 및 藥方, 産後의 諸症과 藥方 및 妊娠豫備藥物, 産時의 防, 避妊日 등을 敘述하고 附錄으로서 初生兒의 救急法을 敍

述하고 國文으로 譯을 부쳤다.

法醫學은 李朝醫學의 發達한 部分이다. 李朝時代에 一般的으로 使用된 것은, 中國의 “無冤錄”이다. 이 冊은 朝鮮官吏들이 解釋하기 困難한 條文이 많아서 實際 應用하기 困難하므로, 世宗은, 崔致雲·李世衡·卞孝文·金滉 등에 命하여 “無冤錄”을 註解해서 音註를 부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正統3年(1438年)에 이를 完成하였다.

이것이 곧 “新註無冤錄”이다. 그 後 몇 사람에게 의해 補修無冤錄이 發展하였으며 補修無冤錄 및 그 諺解에서 世宗 以後 法醫學의 經驗이 開發되었으며, 科學的인 法醫學으로 發展되었다.

이 밖에 李朝의 法醫學關係 書籍에는 正祖 在位 25 年間의 刑獄 1,100餘의 判決을 收錄 編輯하여 無冤錄의 實際應用을 보여주고 있는 洪仁浩 兄弟의 審理錄(32卷6册 寫本, 1732年篇), 또 無冤錄을 引用한 丁茶山의 欽欽新書(30卷10册 寫本, 1822年篇), 그리고 殺獄事件 또는 檢屍를 收錄한 檢案, 檢題 등의 書籍이 있다.

◇參考文獻: 三木榮著, 朝鮮醫學史及疾病史, 1963年

(16面에서 繼續)

- 30日 「도협월보」 4·6倍版으로 版을 變更 發刊(1965年)
- 31日 李載誥 著 主題名標目表 出版(연세대학교 도서관학총서 제7집) (1961年)
- 奎章閣 圖書目錄韓國本書名索引이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에서 出版(1966年)

2 月

- 江景文庫 設立(1907年) 京城文庫 設立(1909年)
- 郡山圖書館 設立(1912年) 論山文庫 開設(1919年)
- 開城鄉校 財産으로 圖書館과 講習經營을 開城郡에서 計劃(1924年)
- 京城圖書館 다시 開館(京城府에서 經費를 補助해 주다) (1925年)
- 京城圖書館 府營으로 決定, 府立은 大觀亭으로 移轉(1926年)
- 馬山福壽會 文庫部 新設(1927年)
- 釜山圖書館 火災, 藏書 3萬册 火災를 免함(1938年)
- 漢陽大學校 圖書館 新築 竣工
- 成均館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 漢籍編目規則 出版(1962)
- 京畿道教育研究圖書室 設立(1962年)
- 文教部 教育課 圖書室 設立(1962年)
- 5日 休刊됐든 國協月報 대신 도협뉴스(등사판)발행(1959年)

- 6日 陸軍防諜部隊 圖書館 設立(1962年)
- 7日 國民學校 圖書館研究展示會를 10일까지 中央公報館에서 開催(1961年)
- 8日 西江大學圖書館 設立(1960年)
- 國立大學校 圖書館會議을 韓國圖書館協會에서 開催(1963)
- 10日 忠北 槐山美德圖書館 設立(安東游 設立) (1962年)
- 11日 第12次 韓國圖書館協會 定期總會를 建設會館(서울) 講堂에서 開催(1966年)
- 12日 第11次 韓國圖書館協會 定期總會를 13일까지 서울大學校齒科大學에서 開催(1965年)
- 16日 大田大學圖書館 設立(1959年)
- 17日 淸州教育大學 圖書館 設立(1962年)
- 19日 제40회 國會 第14次 本會議에서 7條로 된 國會圖書館職制 通過(1964年)
- 20日 韓國書誌學會에서 書誌 創刊號 發行(1960年)
- 1964년 4月 17日에 結成한 「Librarian's Club」을 「韓國青年圖書館研究會」로 改稱하고 정기총회를 開催(1965年)
- 23日 國務會議에서 政府刊行物調整委員會의 設置를 議決(1965年)
- 26日 關東大學附設圖書館 設立(1959年)
- Peabody 教育使節團 主催로 28日까지 全南의 各郡 獎學士 및 國民學校 圖書館 擔當教師에 대한 兒童圖書講習會 開催(1962年)

Documentation 動向

「American documentation」 명칭변경. 잡지 American documentation은 금년부터 그 명칭을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라고 변경했고 아직까지는 계간으로 發刊하든 것을 격월간으로 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Volume Number는 계속으로 나와 今年度에는 Vol. 21로 된다고 한다.

(Re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의 안내에서)

「Chemishes Zentralblate 폐간」 獨逸化學會(Gesellschaft Deutschen Chemister: GDCh.)에서 나오는 化學關係 學術論文抄錄誌 Chemishes Zentralblate 誌가 지난 69年度 말을 기해서 폐간되었다,

(Ref: FID News Bulletin Vol. 19. No. 11. 1969에서)